

제1회 마리아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  
2021. 9. 2.(목) 10:00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

## 축 사

존경하는 전국 자원봉사자 및 간호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의장 송영현입니다.

먼저 제1회 마리아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합니다.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으로 보여주신 마리아느  
·마가렛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봉사의 숭고한 참뜻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봉사정신을 승화시키기 위한 마리아느·마가렛 봉사대  
상을 작년에 제정하여, 오늘 그 첫 번째 결실을 축하하게 되었습니  
다.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참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강선화님과 박희성님께 축하를 드리며, 사랑과 희생의 봉사활  
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주신 소중한 마음에  
아낌없는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시상식을 준비해주신 송귀근 군수님과 마리아느·마가렛 선  
양사업추진위원장이신 김연준 신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전남고흥교육지원청 김정희 교육  
장님, 고흥군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받들어 섬긴다’ 라는 봉사의 의미 속에는,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간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행하는 것이 봉사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고흥군의회에서는 마리안느·마가렛 두분의 봉사정신이 담고 있는 숭고한 가치를 반드시 지키고 계승해 나갈 것이며, 우리국민 모두의 염원인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상을 받으신 수상자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라는 말을 깊이 되새기면서, 함께하신 모든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